

샤넬 오뜨 꾸뛰르 디자인의 미적 특성

김 선 영[†]

순천대학교 생활과학부 패션디자인전공

The Esthetic Characteristics in Chanel's Haute Couture Design

Sun-Young Kim[†]

Dep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2006. 4. 28. 접수: 2006. 9. 2. 채택)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esthetic characteristics in the haute couture work of Chanel. It first reviews the lives and the fashion philosophy of Chanel, a senior designer and Lagerfeld as representatives of the maison, from the haute couture collection since 200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the following. First, reinterpreting the tradition, Chanel reproduced historical dress items or silhouette with modern sense, or she created a new modern Chanel image through her original restructuring and dismantling. Second, Chanel expressed balanced beauty of compounded eclecticism by accord between simplicity and ornamentation, which meant her design showed impartial beauty with simple silhouette, decoration with colors, accessories, and ornaments. Third, Chanel did not divide the value between men and women, and instead expressed androgyny through dismantling each gender's characteristics by borrowing or mixing. As a result, she emphasized the female image or created a new style through expressing symbolic image embracing masculinity.

Key words: re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전통의 재해석), simplicity and ornamentation(단순과 장식), androgyny(양성성).

I. 서론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의 산물 중에서도 패션은 영원의 미학 속에서 변화와 새로움을 중심적 가치로 삼는 일시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의미의 전달자로서 표현 문화적 성격을 나타낸다. 이러한 패션의 창조자이자 전달자로서 패션 디자이너는 다양한 패션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각 시대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여 그 시대의 미적 가치의 척도나 다음 시대를

위한 새로운 스타일 창조를 발판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패션의 역사상 근대 패션의 시작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새로움을 만드는 절대적 실험실로서 한 세기 반의 권위를 유지해온 오뜨꾸뛰르(Haute Couture)는 급변하는 문화적 현상과 사회 구조의 변동 속에서도 프랑스를 국제적인 패션의 중심지로서 그 위치를 확고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생활 양식의 변화, 여성의 지위 향상, Haute Couture 자체의 재정적 손실 등은 1960년 중반이 후 많은 메종들을 폐점 또는 기성복 라인으로 변화하게 만들어 Haute Couture의 불확실한 미래를 시사하기도 했지만, 21

[†] 교신저자 E-mail: bcbgyoung@hanmail.net

세기인 현재에도 Haute Couture의 존재는 지속되고 있으며 끊임없이 패션 창조를 위한 산신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프랑스 오뜨꾸뛰르를 대표하는 메종인 샤넬(Chanel)은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면서 메종의 고유한 컨셉과 함께 샤넬만의 디자인, 소재, 봉제 테크닉 등 세계 패션의 흐름과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샤넬의 오뜨꾸뛰르 작품에 표현된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디자이너가 작품을 통해 추구하는 새로운 미적 가치를 고찰하고, 또 프랑스 오뜨꾸뛰르 업계를 대표하는 샤넬의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개혁과 변화되고 있는 양상들을 통해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세계화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선행 연구와 관련 문헌 및 작품집, Vogue, Bazaar, Collections 등 국내외 패션 전문지에 게재된 작품 사진과 인터뷰 기사 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연구 범위는 디자인이나 테크닉에 있어 최고라 할 수 있는 오뜨꾸뛰르 라인에서 전개된 작품 중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선행 연구의 경우, 주로 샤넬이 디자인한 작품이나 2000년 이전으로 한정되어 있어 2000년 이후 작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의 시작과 함께 다양한 문화와 첨단기술의 발전, 물질적 풍요에 따른 가치관과 윤리관의 변화 등 미의식의 변화가 예상되는 새로운 전환적 시기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II. 샤넬 오뜨 꾸뛰르의 디자이너에 따른 작품세계

프랑스는 풍부한 문화적 유산과 패션 산업의 조직력과 보호정책, 도제 중심의 인력 양성 및 디자인의 창조성을 중시하며 그 독창성을 유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샤넬의 명성은 디자이너 한 개인에 의해서가 아닌 시대적 변화와 함께 교체되는 수석 디자이너의 개인적 특성과 메종 1세의 디자인 컨셉

을 전수, 유지함에 따라 변화되고 표현되어지는 샤넬만의 디자인적 독창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샤넬 오뜨꾸뛰르 작품의 미적 특성을 고찰하기에 앞서 메종을 대표하는 수석 디자이너의 작품과 그 철학을 알아보고자 한다. 샤넬 메종의 수석 디자이너는 샤넬 사후 필립 귀부르제(Philippe Guibourge)가 잠시 맡았으나, 1983년부터 현재까지는 칼라거펠드(Karl Lagerfeld)가 맡고 있다.

1. Gabrielle Chanel

1883년 프랑스 소뮈르(Saumu)에서 태어난 샤넬은 18세까지 수녀원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패션에 대한 열정은 그녀를 파리로 이끌었다. 샤넬은 당시 최고의 꾸뛰리에(Couturier)였던 루시엔느 라바테(Lucienne Labate)의 제자를 거쳐 모자 가게의 주인이 되었고 타고난 재능과 사교술을 통해 도빌, 비아리츠 등에 매장을 열었다. 샤넬은 전쟁기간동안 여러 시도 끝에 1919년 파리 강봉가(Rue de Cambon)에 개점하였는데 1920년대에 이미 샤넬이라는 이름은 실제적으로 부와 귀족주의의 동의어였다¹⁾.

“옷은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한 그녀는 시대정신을 잘 파악했고 각 시대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옷을 디자인했든 간에 그녀가 높이 평가한 것은 바로 고급스러운 편안함이다²⁾. 당시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사회 전반에 걸친 변혁은 여성에게 있어서도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이라는 존재에서 벗어나 남성과 동등한 사회활동을 하는 활동적인 여성상을 요구하게 되었고, 샤넬은 이러한 경향을 파악하고 단순성과 기능성이 강조된 디자인을 제공하여 1920년대 패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샤넬이 창조한 가르송느(Garconne) 스타일은 당시 스타일에 있어 혁명적인 것으로 직선적인 실루엣의 자유로움과 활동성을 부여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저지 소재의 로우 웨이스트, 주름 스커트, 크로셰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가르송느 스타일은 사회계층간의 차이를 평준화하고 모든 계층의 전 여성들에게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개혁 의상으로서의 의미가

1) Valerie steele, *Paris Fashion*,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8), p. 246.

2) *Vogue Korea*, 2005년 6월, p. 281.



〈그림 1〉 Garconne 스타일 (1925, *Histoire de la mode*, p. 126).



〈그림 2〉 Chanel (1958 *F/W*, Chanel, p. 40).

크며 하나의 젊은 스타일로서 완전한 모드의 혁신을³⁾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색상에 있어서도 입체파의 영향으로 낮은 채도의 색상을 추구했던 그녀는 검정색을 모든 색을 이기는 절대적인 색으로⁴⁾ 생각했으며, 당시 유행하던 파스텔 톤이나 원색에 반대하여 상복이외에 당시 여성복에 사용되지 않았던 검정색의 과감한 사용으로 현대적 이미지로 탈바꿈 시켰다⁵⁾. 소재의 사용에 있어서도 샤넬 자신이 저지를 발견하여 인체를 해방하고 허리선을 없앴으로써 새로운 실루엣을 창조하였다고⁶⁾ 했듯이 샤넬은 텍스타일 분야에서 혁신자라고 할 수 있다. 남성 노동자의 속옷이외에는 사용된 적이 없었던 저지를 사용해서 몸의 움직임에 자유롭게 하고 여성들의 스피디한 생활 양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⁷⁾ 독창적인 스타일을 완성하였다.

무엇보다도 샤넬이 현대 패션사에 끼친 가장 큰 공로는 코르셋으로부터 여성의 몸을 해방시켰다는

사실이다. 샤넬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여성의 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것으로 유명한데, “당신은 숨을 쉬어야 하고 움직여야 하며 무엇을 입었는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라고 샤넬이 보그 편집장인 베티나 발라드에게 한 말에서도⁸⁾ 그녀의 패션 철학을 느낄 수 있다.

또 샤넬은 심미적인 것 이상으로 반드시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기본정신을 잃지 않아 그녀가 창조한 샤넬수트와 같은 특유의 클래식한 의상들은 단순한 패션의 차원을 넘어 새롭고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해 주는 것들이었다(그림 2). 모든 재킷의 포켓들은 손을 넣을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디자인되었으며, 모든 단추에는 항상 단추 구멍을 만들어 넣었고, 재킷의 실크 안감에 무게를 주기 위해 체인 바이이스를 한 것처럼 심미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모드란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것이다. 스타일은 계속 새로움을 더해 가지만 그 기본은 그대로 남는 것이다⁹⁾.”라는 그녀의 말을 통해 샤넬은 유행에 따른 디자인의 변화보다는 샤넬의 정신 즉 컨셉이 깃들여 있는 스타일을 강조했음을 읽을 수 있다. 또 그녀가 창조한 스타일은 젊음을 강조한 것으로 “젊음은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신에 관한 것이며, 의상보다는 컨셉에 관한 것이다¹⁰⁾.”라고 하여 패션을 단순한 외면의 표현이 아닌 정신이 깃든 삶의 표현으로 해석하였다. 즉 개인적 가치와 여가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현대적 삶의 형태를 반영하여 젊음을 강조하는 현대 패션의 시작을 표현한 것이다.

또 “나는 사치를 좋아한다. 사치는 부유함이나 과잉장식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속함이 없는 곳에 존재한다. 저속함은 우리의 언어 속에서 가장 비열한 단어이다. 내가 꾸뛰르에 몸담고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다¹¹⁾.”라고 말한 것처럼 의상을

3) 채금석, 양숙희, “20세기 현대복식에 표현된 표현주의,” 복식 24호 (1995), p. 128.

4) Paul Morand, *L'Allure de Chanel*, (Paris:Hermann, 1976), p. 148.

5)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1995), p. 352.

6) Jean Leymarie, *Chanel*, (New York: Rizzoli, 1987), p. 57.

7) 야미숙, “샤넬 스타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 208.

8) *Vogue Korea*, 2005년 6월, p. 278.

9) *Vogue Korea*, 1997년 6월, p. 147.

10) Francoit Bodot, *Chanel*, (London: Thmes & Hudson, 1996), p. 10.

11) *Elle Korea*, 1996년 2월, p.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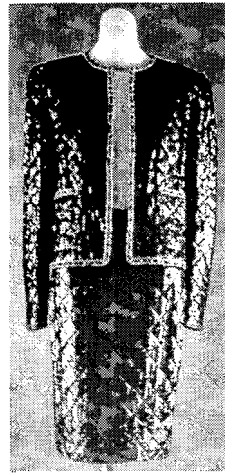
사치가 아니라 실용으로 생각했던 샤넬은 “복제되면 될수록 좋다. 그것은 자발적인 광고가 되며 자신이 광고할 수고를 덜어준다. 거리에 나서지 않은 모드는 모드가 아니다¹²⁾.”라고 하여 다른 디자이너들과 달리 복제를 두려워 하지 않았다. 이는 샤넬 의상이 그저 한 벌의 옷이 아니라 의상의 혁명이며 하나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패션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복제허용이라는 샤넬의 마케팅 전략은 거대한 기성복 시장을 형성하는데 일조하였다¹³⁾.

2. Karl Lagerfeld

칼 라거펠트는 독일 함부르크 태생으로 1952년 파리로 이주하여 16세에 IWS 디자인 콘텍스트 코트 부문에 1위로 입상하였으며, 피에르 발망(Pierre Balmain)과 장 파투(Jean Patou)를 거쳐 1960년대 초 프리에이전트를 세워 Chloé, Fendi, Karl Lagerfeld Gallery를 디자인하였고, 마리오 발렌티노(Mario Balentino)와 찰스 주르당(Charles Jourdin)에 장갑과 구두 디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¹⁴⁾.

“라거펠트는 활기차고, 아이러니하고, 빈틈없는 모더니티 덕분에 샤넬의 전설을 이어갈만한 인물로 뽑혔다.”라고 케네디 프레이저가 보그 기사에 쓴 것처럼¹⁵⁾ 라거펠트는 1983년 샤넬의 소유주인 알랭 베르트하이머에 의해 영입되어 샤넬 라인에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디자인 감각을 가미하여 이미지 변신을 이룸과 동시에 최고의 브랜드로 인기를 누리게 하였다.

과거 어느 매종보다 획기적이고 변화에 앞장 섰던 샤넬은 그 이름만으로도 전 세계 여성의 가슴을 동요시켰으며, 샤넬 사후 매종은 10여 년간 나이든 주 고객들만을 상대로 점차 빛을 잃어갔다. 그러나 라거펠트는 수많은 브랜드의 홍수 속에서도 샤넬의 확고한 위치를 굳혀 전통을 지킴과 동시에 가장 유행의 첨단을 지향하면서도 유행되고 있는 어떤 것과



〈그림 3〉 Chanel-Karl Lagerfeld (1986, *Haute Couture*, p.95).



〈그림 4〉 Chanel-Karl Lagerfeld (1991 *F/W Chanel*, p.64).

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였다. 그는 “사업을 망치고 싶다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패션에서 중요한 건 존경이 아니라 패션 그 자체이다¹⁶⁾.”라고 말하면서 디자인, 홍보 등 샤넬의 미래 지향적인 환경을 구축하였다.

라거펠트는 1980년대 샤넬 매종의 변치 않는 요소들 즉 샤넬의 변치 않는 아이템인 트위드 수트, 카멜리아 액세서리, 두 개의 C를 교차시킨 로고, 체인을 단 누비 핸드백, 투톤 칼라의 여성용 힐 등 샤넬이 추구해온 대비와 모순의 조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다시 재정립하여 세련된 여성의 상징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림 3〉은 검정 시퀀과 금색의 작은 바드를 이용해 마치 킥팅한 것처럼 표현하여 샤넬 슈트를 라거펠트식의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1990년대에 라거펠트는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와 함께 오뜨꾸뛰르적인 고품격의 디자인에 하위 문화의 한 요소인 키치적 요소를 가장 잘 조합한 디자이너로 평을 받기도 했으며¹⁷⁾(그림 4), 최

12) Paul Morand, *Op. cit.*, pp. 141-146.

13) 김선영, “오뜨꾸뛰르 작품에 표현된 현대 패션의 경향 연구,” *복식* 51권 6호 (2001), p. 61.

14) Teri Agins, *패션디자이너의 세계*, 박문성 역 (서울: 씨앤씨 미디어, 2001), p. 12.

15) *Vogue Korea*, 2005, June, p. 282.

16) *Ibid.*, p. 282.

17) 이관이, “샤넬컬렉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47.

근에는 스키 웨어, 스노보드 웨어, 장난감 같은 플라 스타크 주얼리, 테니스나 샤넬을 이미지 메이킹한 백 등 한층 젊어진 액세서리를 선보였는데 이들 아이덴 들은 샤넬을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브랜드로 인식시 키며 한층 젊어진 샤넬 메종으로 변화시켜 애촌 신 장에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라거펠드가 샤넬의 수석 디자 이너로서 성공한 큰 요인은 샤넬 사후 빛을 잃기 시 작하였으나 샤넬 메종은 계속해서 고급 브랜드로서 존재하였고 다른 메종들처럼 라이선스 계약을 남발 하지 않아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지 않아 오 뜨꾸뛰르 본래의 순수함을 가진 브랜드로서, 패션 투자자들에게 전망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41개의 부티크를 둔 샤넬은 라이선스 계약을 전혀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의류, 화장품, 액세서리에서 연 10억 달러를 벌어들 이게 되었다¹⁸⁾.

또한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등 5개 국어에 능통 한 라거펠드는 대중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샤넬 이란 명칭과 유행을 적절히 믹스시켜 샤넬의 영광을 되찾았으며 스펙터클한 쇼를 선보이던 80년대를 거 쳐 생전의 샤넬보다 더 샤넬스러운 컬렉션을 선보이 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패션은 항상 우아해야 하며 젊어 야 한다¹⁹⁾.” 또한 “오프꾸뛰르에는 모던함이 가미 된 사치스러움이 있어야 한다. 사치스러움에는 현 대적 측면과 과거적 측면이 있는데 과거의 사치스 러움은 유행과는 무관한 부를 과시하는 것에 불과 했지만 현대적 사치스러움에는 고가의 보석이 아니 더라도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현대적인 사고가 있 어야 한다²⁰⁾.”는 패션 철학을 과격하기도 했다.

2004년에는 세계적인 증거가 브랜드인 H&M과 합작으로 Karl Lagerfeld for H&M을 진행시켜 현대 패션의 메스티지(Masstige) 현상을 주도하였으며, 패 션뿐 아니라 사진, 문학, 철학에도 깊은 조예를 가지

고 있는 그는 요즘 세계가 요구하는 멀티플레이어로 서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샤넬 오프 꾸뛰르 디자인의 미적 특성

1. 전통의 재해석

프랑스 문화는 과거와 현실, 보수와 진보, 깊음과 가벼움이 대립하는 가운데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전 통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과 진보적인 형태를 추구 하고자 하는 경향이 양립한다. 이러한 문화의 특성 은 프랑스 패션이 일시적인 유행과 상관없이 과거부 터 현재까지 변함없는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는 전통 적 특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적인 소재나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진보적인 디자인을 추구하 는 현대적 특성으로 나타난다²¹⁾.

보드리야르(Baudrillard)가 “패션은 항상 과거 형 태의 즉각적이고 전체적인 계순환²²⁾”이라고 지적하 였고, 바바라 빈켄(Barbara Vinken)이 “패션은 과거 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넘어 서는 영원한 현재를 표현하는 것²³⁾”이라고 주장하는 것에서도 뒷받침되듯이 샤넬 오프꾸뛰르 컬렉션에 서도 과거로의 회귀 또는 Grand couturier에 대한 존 경의 의미로 과거의 스타일들이 재현되는 현상이 나 타났다. <그림 5>와 같이 그리스 시대 토가를 연상 시키는 드레이프 드레스는 메탈릭한 허리 밴드와 함 께 연출되어 미래적인 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하고, 르네상스 시대의 거대한 러프 칼라의 이미지는 웅장 한 느낌 대신 얇고 비치는 소재의 풍성함과 함께 로 맨틱한 이미지로 변화되었다(그림 6). 이와 같이 과거 의 스타일을 부활시키는 것은 과거의 재현이나 모방 이 아닌 전통의 재해석 내지 재창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1926년 샤넬이 디자인 한 ‘Little black dress’는 크 레이프 소재로 만든 무릎 길이에 허리선이 약간 내려 간 심플한 디자인의 검정 원피스로, 당시 미국 자동차

18) Teri Agins, *Op. cit.*, p. 58.

19) *Harper's Bazaar Korea*, 2004, May, p. 352.

20) *Elle Korea*, 1998, April, p. 140.

21) 정유경, “20세기 프랑스 패션과 이탈리아 패션의 비교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 46.

22) Jean Baudrillard, *Symbolic Exchange and Death*, (London: Sage, 1993), p. 88.

23) Cerda Buxbaum, *Icons of Fashion*, (New York: Prestel, 1996), p. 166.



〈그림 5〉 Chanel-Karl Lagerfeld (2001 F/W, Harper's Bazaar, 2000. 9).



〈그림 6〉 Chanel-Karl Lagerfeld (2003 F/W, Vogue, 2003. 9).



〈그림 7〉 Chanel-Karl Lagerfeld (2005 F/W, W Korea, 2005. 9).

회사 Ford사의 모델 'T'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무렵 발표된 것이다. 당시 미국 「Vogue」지는 이를 'Little black dress'라고 칭했고, 'Ford of fashion'이라는 수식어로 검정 포드 자동차에 비유했다²⁴⁾. 이 드레스는 패드가 아닌 클래식으로 자리 잡아 크고 작은 패션 하우스의 디자이너들을 통해 전화와 부활을 거듭해 왔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미니멀하고 클래식한 느낌에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으며, 라거펠드는 2005 F/W에 로우 웨이스트라인의 오픈 숄더 블랙드레스로 커다란 리본 장식과 함께 로맨틱

한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한층 젊어진 스타일로 변화시켰다(그림 7).

또 샤넬이 "모드란 즉각적이며 순간적이고 스타일은 계속 새로움을 더해 가지만 그 기본은 그대로 남는다."라고 하였지만, 라거펠드는 "지금은 모드와 스타일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없다"²⁵⁾라고 말하면서 샤넬 메종의 전통적인 스타일을 존중함과 동시에 샤넬 스타일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세대와 시대적 분위기에 맞는 실루엣으로 현대적인 샤넬 이미지를 창조해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가 샤넬의 디자인에 새로운 창조성을 보인 것은 소재나 장식과 같은 형식에 변화를 주면서 전통적인 샤넬 슈트의 해체를 통해 끊임없이 디자인의 재해석을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8〉은 2000 S/S 작품으로 뉴욕의 이미지를 샤넬 슈트와 결합시키고 24K골드 벨트를 이용해 가는 허리를 더욱 강조시켜 샤넬식의 뉴욕을 창조한 것이며, 〈그림 9〉는 켈팅과 지수를 이용한 슈트, 메탈릭한 색상의 밴드, 플렉시글라스(Plexiglass)로 된 하이힐 부츠를 이용해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변화시킨 것이다. 〈그림 10〉은 애드워드인 풍의 높은 칼라 라인과 퍼프 소매, 피트 되는 소매통과 가는허리로 하나의 실루엣 속에 엄격함과 장식성, 관능미 등 대비되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고, 〈그림 11〉은 2005 F/W 작품으로 다양한 네크라인과 칼라, 칠부소매, 라인의 절개를 통해 몸에 피트 되는 라인으로 모던하고 젊은 감각의 슈트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재해석의 시각은 칼 라거펠트가 화가나 "조각가 등 예술가는 그 시대에 작품을 만들어 두고 세상을 떠나면 그만이지만 패션은 계속 진화해 가야 하는 것이 다르다. 패션은 논스톱 다이얼로그이다. 과거는 잊고 바로 그 시대와 끝없이 대화를 나누며 발전해 가야 한다. 샤넬 꾸뛰르 역시 마찬가지이다."²⁶⁾라고 말한데서도 예측할 수 있다.

의상뿐 아니라 1990년 후반에 들어와 오픈꾸뛰르 컬렉션은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에 의한 공간개념의 확장으로 대규모의 컬렉션을 개최하였고, 하나의 스토리가 전개되어 나가는 듯한 퍼포먼스적 양상을

24) W Korea, 2005, September, pp. 78-79.

25) Vogue Korea, 1997, June, p. 147.

26) Vogue Korea, 2006, May, p. 176.



〈그림 8〉 Chanel-Karl Lagerfeld (2000 S/S, Collezioni).



〈그림 9〉 Chanel-Karl Lagerfeld (2001 F/W, Harper's Bazaar, 2000. 9).



〈그림 10〉 Chanel-Karl Lagerfeld (2002 F/W, Vogue, 2002. 9).



〈그림 11〉 Chanel-Karl Lagerfeld (2005 F/W, Vogue, 2005. 9).

보임에 따라 의상 자체보다는 패션 모델이나 이들의 즉흥적인 연기, 분위기, 무대장치 등을 부각시켜 의상들을 제대로 보이지 않게 하는 단점을 갖게 되기도 하였다²⁷⁾. 라거펠트는 이러한 대규모 컬렉션을 지양하며 과거 오프꾸뛰르적인 살롱 쇼를 개최하여 샤넬의 전통과 그 가치를 다시 찾아 현대적인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2. 단순과 장식의 조화

스티븐 코너(Steven conner)는 모더니즘에서 탈피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예측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장식과 치장을 이야기하였는데, 현대 조형미학 중 하나인 모던함은 장식 제거를 통한 단순함을 지향하면서 복잡한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모던함이 주는 차가움과 단단함, 빈틈없는 표현들에 의한 획일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감성의 욕구는 현대인들에게 다시금 장식의 욕구를 갈망하게 하였다²⁸⁾.

패션에 있어 장식은 여성미를 강조시키면서 꿈과 환상적 이미지를 가중시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형태나 단일 색상 위에 서링, 플리츠, 자수, 비

딩, 리본, 액세서리 등과 같은 디테일과 트리밍을 이용해 모던함이 주는 경직성이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장식적 요소와의 조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샤넬의 오프꾸뛰르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단순과 장식의 이중적 특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복식 속에 새로운 어우러짐으로 표현된다.

〈그림 12〉와 같이 흰색 드레스가 주는 단순함은 금색 스팽글과 비딩장식, 러플, 레이스 등으로 장식되어 단순함은 사라지고 장식성의 표현이 부각되어 나타났으며, 〈그림 13〉의 스커트 부분은 마치 꽃술을 연상시키는 꽃의 아플리케로 장식되고 손가락마다 끼고 있는 장식반지와 함께 풍성하고 볼륨감 있는 장식성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라거펠트는 오프꾸뛰르 패션의 중심인 전통적 수공과 장식예술을 대변하는 작업들을 통해 단순성의 바탕 위에 오프꾸뛰르 작품의 가치를 현대적인 고급스러움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샤넬이 “참된 문화가 쓸데없는 위선과 허식을 제거한다는 말이 있듯이 모드란 화려한 장식적인 아름다움에서 시작하여 단순함에서 끝난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1916년 이후 Vogue지 역사 심플함과 고

27) 김선영, "오프꾸뛰르 작품에 표현된 현대 패션의 경향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 145.

28) 이경아, 전해정, "로맨티시즘 복식의 양식 III," 복식 55권 1호 (2005), p. 65.



〈그림 12〉 Chanel-Karl Lagerfeld (2002 S/S, L'official, 2002. 4).



〈그림 13〉 Chanel-Karl Lagerfeld (2000 S/S, Harper's Bazaar, 2000. 3).



〈그림 14〉 Chanel-Karl Lagerfeld (2002 S/S, L'official, 2002. 4).



〈그림 15〉 Chanel-Karl Lagerfeld (2001 S/S, Vogue, 2001. 3).

품질은 패션의 특징 중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관이라고 지적하였다²⁹⁾. 즉, 샤넬이 추구하는 단순함은 유연한 소재로 흐르는 듯한 전체적인 외관을 중시하면서 견치레적인 장식을 제거하고 절제된 명확성을 통해 여성의 인체를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³⁰⁾.

그러나 샤넬을 특징짓는 것 중의 하나는 디자인에 있어서의 단순성을 액세서리나 소품을 통해 여성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아이템 중 하나가 여러 겹의 진주 목걸이와 카멜리아이다. 〈그림 14〉과 같이 형태적으로 극히 절제되고 명확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피스 앙상블은 다소 경직된 느낌을 주지만 화사한 톤의 색상과 여러 줄로 된 진주목걸이, 카멜리아 꽃 장식을 머리에 연출함으로써 절제된 의상의 스타일을 더욱 부각시키고 토탈코디네이션의 감각을 보이며 착용자의 우아한 여성스러움을 표현하였다. 〈그림 15〉 역시 흑백의 대비로 딱딱한 느낌을 주는 테일러드 슈트는 여러 줄의 목걸이로 그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로우 웨이스트에 위치한 장식 허라 밴드는 재킷 햄 라인의 브레이드와 함께 2개의 허리선을 연출시켜 변화감을 주어 우아한

장식과 절제된 단순함이란 이중적 구조의 미적 가치를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2000년 이후의 샤넬 오프꾸뛰르 컬렉션을 살펴보면 매 시즌마다 패션 디자인의 요소 중 대부분의 디테일과 트리밍을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여 장식적인 요소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한 슈트의 일부분에 키치적 요소가 가미된 혼잡스러움을 사용하거나 의복 전체에 다양한 장식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전체적인 코디네이션 개념에서 의복만 단순하고 그 외 소품과 액세서리, 장식 등을 혼용해서 조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순성과 장식성을 잘 조화시키고 있다. 즉 단순한 실루엣에 의한 기능성이나 활동성, 단조로운 색상, 그리고 함께 연출되는 액세서리나 소품의 조화가 주는 여성성이나 장식성 등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의미를 나타내며 복합적인 절충의 조화미를 나타내었다.

3. 양성성의 표현

제인 그로브(Jane Grove)가 20세기 복식의 혁명 중 하나는 성의 혁명³¹⁾이라고 했듯이 현대 패션은 성을 구

29) Paul Morand, *Op. cit.*, p. 114.

30) 정유경, *Op. cit.*, p. 44.

31) 김민자, *복식미학강의 2*, (서울: 교문사, 2004), p. 100.



〈그림 16〉 Chanel-Karl Lagerfeld (2001 S/S, L'official, 2001. 3).



〈그림 17〉 Chanel-Karl Lagerfeld (2005 S/S, Vogue, 2005. 5).



〈그림 18〉 Chanel-Karl Lagerfeld (2001 F/W, L'official, 2001. 9).

분하는 중요한 수단이 아니라 오페 및 위장을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패션이 창출하는 성적 이미지는 그 구분을 모호하게 하거나 반전시켜 끝없는 변화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 성역할의 변화, 자유로운 감성과 개성의 추구, 세계화와 다원주의 시대에 몰입 등 사회, 문화적 환경은 개인에게 자유를 추구하고 한 개인에게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동시에 표출하게 하는 양성성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다. 즉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상반된 양면성을 어

느 한 부분도 부정될 수 없는 동등한 하나의 본질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³²⁾.

과거 패션에 있어서 가장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여성성을 발현하는 전통적인 여성성의 개념은 남녀 불평등 및 그로 인해 초래되는 귀결인 여성억압과 직결되어 왔다³³⁾. 그러나 패션 역시 개인의 주체성이나 성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통한 정체성의 왜곡이나 속임수 또한 가능하므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양성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패션에 있어서의 성적 구분의 무가치함을 상징하게 된다³⁴⁾.

샤넬의 오프꾸뛰르 컬렉션에서 보이는 성의 양면성의 조화는 이러한 문화의 현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프랑스 문화의 이원적인 문화적 특성에 의해 여성과 남성의 대립되는 가치가 공존하여³⁵⁾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도 양성의 미적 가치를 서로 절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은 여성의 전유물이던 웨딩드레스에 남성성의 상징인 넥타이를 연출하여 기존 웨딩드레스의 개념을 탈피한 작품으로 자유로운 발상의 전환을 느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패션에서 양성성은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남성복식의 이미지를 수용함으로써 좀 더 남성적 특질을 강하게 보이거나 하는 측면으로 인식되었으나,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강한 남성성의 표현 이라기보다는 남성다운 여성스러움으로 표현되었다. 즉 남성복 또는 여성복의 개념을 제거하고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고정관념을 뛰어 넘어 이성의 복식요소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남자와 여자가 지니는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조화시키는 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17〉는 스캐럽과 리본 모티브의 투피스 드레스에 카멜리아 꽃 장식의 초코로 장식하여 로맨틱하고 소녀적인 스타일을 짧은 컷에 미소년과 같은 모델로 연출시켜 중성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였다.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분화 현상보다는 각각의 요소들을 반대성에 차용하거나 남성과 여성적인 특징을 혼합함으로써 각각의 성이 갖는 특성을

32) 함연자, "현대 패션에 나타난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미적 특성," 복식 53권 6호 (2003), p. 112.
33) Elizabeth Wilson, *Adorned in Dreams: Fashion & Modernity*, (London: Virago, 1985), p. 117.
34) 양숙희, 양희영,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신화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 55권 1호 (2005), p. 161.
35) 정유경, *Op. cit.*, p. 90.

해체하여 성적인 차별을 중시했던 기존의 패션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³⁶⁾.

샤넬이 “내가 태어난 시대는 한 세계가 끝나고 다른 세계가 탄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패션 스타일을 요구했다³⁷⁾.”고 말한 바와 같이 그녀가 창조했던 샤넬 슈트는 당시 새로운 여성의 상징으로 젊음을 표현하였으며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도 다양한 감성으로 재해석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절제된 단순미를 보여준 <그림 15> 역시 남성복의 전형인 테일러드 슈트를 간결한 장식과 함께 연출함으로써 슈트에 내재된 전통적인 남성성의 개념을 해체시키고 모던하고 여성적인 샤넬 스타일로 조화시켰다. 여러 시즌을 통해 나타나듯이 엄격한 남성복의 아이템인 테일러드 재킷에 레이스, 프린트, 자수, 액세서리 등을 전통성에 구애 받지 않는 자유로운 감성으로 절충시키거나, 신축적인 소재나 가죽, 비치는 소재의 사용 등으로 여성적인 품매를 강조하여 새로운 샤넬의 이미지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클래식 테일러드 슈트가 더 이상 표준적인 복장이 아닌 자유로운 감성으로 다양한 이미지의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³⁸⁾.

2001 F/W에는 컬렉션의 거의 모든 스타일에 팬츠를 응용시켜 남성적임과 여성스러움의 대비 그리고 조화를 표현하기도 했다. <그림 18>의 온통 검정색으로 구성된 코트와 바지, 탑은 각 소재의 이질적인 특성으로 검정이 주는 단순함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시스루 소재의 비딩된 탑과 여러 겹의 진주목걸이로 연출해 남성적인 복식의 요소들을 차용했지만 남성적인 이미지에서 이탈하여 보다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조되어 나타났다. 즉, 남성복에서 표출되는 상징적인 힘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다는 평등의 이념을 가지고 남성성이 내포하는 자신감, 독립심과 같은 강한 이미지를 새로운 소비의 주체자인 여성의 패션에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남성적 가치와 여성적 가치를 구분하지 않고 얹고 얹고 부드러운 소재의 사용이나 파스텔 색채, 비딩, 자수 장식을 통해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연

출함으로써 여성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형식과 남성성이 내포하는 상징적 이미지를 여성복에 표현하기 위하여 남성복 스타일의 요소를 도입하여 단순함, 편안함 등에 의한 새로운 여성다움을 확립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스타일로 나타났다.

IV. 결 론

과거 샤넬의 이미지는 혁신적인 여성의 대명사인 가르송느였지만, 샤넬의 현재 이미지는 부와 지위의 상징으로 대표되며 샤넬만의 디자인, 소재, 봉제 테크닉 등 세계 패션의 흐름과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프랑스 오프꾸뛰르를 대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샤넬의 오프꾸뛰르 작품에 표현된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먼저 매종을 대표하는 수석 디자이너인 샤넬과 라거펠드의 생애와 그 패션 철학을 고찰하였으며, 2000년 이후 오프꾸뛰르 컬렉션에 표현된 샤넬 오프꾸뛰르 작품의 미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전통의 재해석으로 과거 역사적인 복식의 아이템이나 실루엣 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창조하거나, 매종 고유의 전통적인 스타일을 존중함과 동시에 샤넬 스타일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세대와 시대적 분위기에 맞는 실루엣으로 현대적인 샤넬의 이미지를 창조했다. 둘째, 단순과 장식의 조화로 단순한 실루엣에 의한 기능성이나 활동성, 단조로운 색상, 그리고 함께 연출되는 액세서리나 소품의 조화가 주는 여성성이나 장식성 등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의미를 나타내며 복합적인 질층의 조화미를 나타내었다. 셋째, 양성성의 표현으로 남성적 가치와 여성적 가치를 구분하는 양분화 현상보다는 각각의 요소들을 반대성에 차용하거나 남성과 여성적인 특징을 혼합함으로써 각각의 성이 갖는 특성을 해체하여 여성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거나 남성성이 내포하는 상징적 이미지의 표현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스타일로 나타났다.

36) 함연자, *Op. cit.*, p. 112.

37) *Vogue Korea*, 1997, June, p. 148.

38) 함연자, *Op. cit.*, p. 112.

패션의 역사상 많은 브랜드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가운데 샤넬이 성공을 보장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변치 않는 고유성, 바로 샤넬의 전통적인 '샤넬의 정신'을 유지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관습을 타파하고 자유를 추구하며 패션에서의 혁명을 창조한 샤넬과 그 뒤를 이어 현재의 눈으로 과거를 재조명하고 미래적인 시각으로 현대를 바라보는 라거펠트는 현 시대에 맞는 샤넬 스타일을 창조했으며 시대를 앞서가는 샤넬의 정신으로 그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적절한 조화는 곧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전통이며 바로 미래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패션을 지배하는 새롭고 강력한 트렌드가 사라진 현대 패션을 지배하는 코드는 인디비주얼리즘(Individualism)으로, 이는 모두가 개인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가진 문화와 취향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디자이너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패션에 대한 개인적인 접근방식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 모든 디자인은 바로 나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사로부터 비롯된다고 했던 샤넬의 원초적인 개인주의와 같이 칼 라거펠트 자신도 자신의 취향과 문화를 기본으로 한 접근방식으로 새로운 샤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의 유지가 아닌 보다 미래적인 시각에서 전통을 재해석하고 시대상황에 맞는 스타일 개발과 이러한 스타일을 계속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한 브랜드의 항상성, 그리고 패션을 바라보는 접근방식에 있어 한국만이 갖는 취향과 문화의 재해석이야말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이 세계화되고 패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된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민자 (2004). *복식미학강의2*. 서울: 교문사.
- 김선영 (2001). "오프꾸뛰르 작품에 표현된 현대 패션의 경향 연구." *복식* 51권 6호.
- 김선영 (2001). "오프꾸뛰르 작품에 표현된 현대 패션의 경향 연구." *복식* 51권 6호.
- 양숙희, 양희영 (200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신화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 55권 1호.
- 이경아, 전해정 (2005). "로맨티시즘 복식의 양식 III." *복식* 55권 1호.
- 이관이 (2000). "샤넬컬렉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숙 (1999). "샤넬 스타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유경 (2004). "20세기 프랑스 패션과 이탈리아 패션의 비교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미애 (2002). *이것이 명품이다*. 시지락.
- 채금석, 양숙희 (1995). "20세기 현대복식에 표현된 표현주의." *복식* 24호.
- 채금석 (1995). *현대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 함연자 (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미적 특성." *복식* 53권 6호.
- Cerda Buxbaum (1996). *Icons of Fashion*. Prestel.
- Elizabeth Wilson (1985). *Adorned in Dreams: Fashion & Modernity*. Virago.
- Francois Bodot (1996). *Chanel*. Thmes & Hudson.
- Jean Baudrillard (1993). *Symbolic Exchange and Death*. Sage.
- Jean Leymarie (1987). *Chanel*. Rizzoli.
- Paul Morand (1976). *L'Allure de Chanel*. Hermann.
- Valerie steele (1988). *Paris Fashion*. Oxford Univ. Press.
- Teri Agins, 박문성 역 (2001). *패션디자이너의 세계*. 씨엔씨 미디어.
- Elle Korea (1996. 2; 1998. 4).
- arper's Bazaar Korea (2004. 5; 2006. 3).
- Vogue Korea (1997. 6; 2005. 6; 2006. 5).
- W Korea (2005. 9).